

(사)한국PET병용기협회

제12회 정기총회 개최

한일프라콘(주) 한규범 대표이사 회장 연임

(사)한국PET병용기협회(회장 한규범)는 지난 달 15일 홀리데이인서울 호텔에서 제1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추진했던 각종 회의의 내용,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정책협조내용, 홍보 조사업무 등의 사업내용과 협회 신규가입 6개사에 대한 소개 및 지난 해 예산집행 내역을 승인, 200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3년 임기가 만료된 회장과 이사(7명)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한일프라콘(주) 한규범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연임하고 기타 비 상근이사 5명과 더불어 상근이사로는 현 협회 김태길 전무를 상근 부회장으로 추대했다.

앞으로 협회는 주문생산체제를 갖고 있는 PET용기 업계의 특성을 감안, 거래기업으로부터 납품가 인하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 불규칙한 원료가격 인상에 대해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힘을 모아 이를



▲ (사)한국PET병용기협회 제12회 정기총회 개최

적절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환경문제와 식품위생문제와 관련 각사별 품질관리를 한창 강화하여 PET 응용수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자원절감과 환경보전을 위해 PET용기 감량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규범 회장은 “지난해 원료가격의 급등과 운반비, 부자재 값이 많이 상승되고 더구나 판매물량은 신장되지 못해 힘겹고 어려웠던 한해였다”며 “올해 역시 연초부터 수요위축으로 판매가 활발치 못하는 등 불투명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때 일수록 업계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한국포장학회

제18회 포장기술 국제 세미나 개최

나노패키징 이용한 신소재 연구개발 투자해야

(사)한국포장학회(회장 김덕웅)은 지난 달 22일 코리아팩 전시회 기간 중 제18회 포장기술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프랑스 포장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포장관련 업체 및



▲ (사)한국포장학회 제18회 포장기술 국제 세미나 개최

유관단체

관계자 이외에도 프랑스포장협회 및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관 관계자들이 참석, 한·프 포장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럽과 프랑스의 포장산업 현황과 프랑스 새로운 식품포장기술, 무균 포장의 충전장치, 새로운 살균기법, 치즈 가공 및 포장의 신기술 등의 발표와 용인송담대 김종경 교수의 신선 농산물 MAP 모델링 연구, (주)이생 김준열 과장의 환경 친화적인 레토르트 파우치의 최신포장 기술, 연세대 김재능 교수의 나노테크놀로지의 포장기술 적용에 대한 전망 등의 강의를 이어졌다.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나노패키징에 관한 발표를 맡은 김재능 교수는 “나노테크놀로지는 향후 각국의 성장 동력산업기술로서 많은 나라들이 힘을 대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국제 및 국내의 과학기술의 흐름에 맞춰 국내 패키징 산업도 첨단소재의 패키징기술개발을 위해 나노테크놀로지를 응용한 새로운 첨단 포장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저가의 중국산이 국내 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국제품과의 차별화와 패키징선진국과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노패키징산업은 반드시 개발해야 할 기술이다.

김재능 교수는 “국내 패키징 산업도 나노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새로운 신소재 연구개발에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하여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상품을 개발, 국제 패키징시장을 점유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노패키징은 10억분의 1수준의 정밀한 극미세가공으로 원자구조를 조작, 배열할 수 있는 나노기술을 패키징과 연관된 모든 영역에 적용한 신개념으로 이 기술을 응용한 신물질, 신소재, 신기술을 이용하여 포장재의 차단성, 열적안정성, 내연·내구성 등의 물성을 강화하고 제품의 질적 향상과 보존을 위한 흡착, 향균, 가스조절 등의 기능을 부여한 첨단 패키징이다. 현재 이 분야는 지난 2000년 미국이 차세대 경쟁력으로 국가나노기술개발을 추진한 이후 선진국들은 경쟁으로 나노기술을 미래 산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있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제10기 정기총회 개최
-----------------------	---------------------

(주)코리아코프 김정식 사장 회장 선임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회장 김정식)는 지난 3월 28일 홀리데이 인 서울에서 제10기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의 안건을 승인했고, (주)코리아코프 김정식 사장을 회장으로 선임 했다. 김정식 회장은 “지난 해 협회는 파렛트 협회와 컨테이너 협회를 겸하면서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는 등의 많은 발전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회원



▲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제10기 정기총회 개최

사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협회는 '유닛로드시스템 보급 확산으로 산업 물류 혁신'을 목표로 △ 협회 조직강화 및 정보화 확대, △ 회원 서비스 확대·강화, △아시아태평양 파렛트 표준화 추진 선도, △ 한국 파렛트 컨테이너 시험기술 개발(KOLAS 인증 획득 추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이앤엑스

제18회 국제플라스틱·고무산업 전시회 개최

국내외 플라스틱산업 경연 상황

한국이앤엑스,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8회 국제플라스틱고무산업전시회(KOPLAS 2006)가 한국국제전시장(KINTEX)의 2,3홀 1만4천4백90㎡의 규모로 개최됐다.

지난 1981년 첫 회를 시작으로 18회째가 되는 KOPLAS 2006은 "Make it More, Make it Plastics"라는 슬로건 아래 19개국 2백31개사가 출품, 국내 플라스틱 및 고무 산업의 최첨단 제품이 전시 소개됐다. 또한, 행사 기간 중에 내국인 3만여 명과 해외 바이어 1천여명이 내방, 성황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관단체

특히 중량품이 많은 KOPLAS 전시회는 그동안 전시장의 한정된 공간과 충분치 못한 시설에서 개최됐던 전시회를 KINTEX로 옮기면서 출품업체들과 관람객들에게 보다 안락한 전시 공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동북아를 대표하는, KINTEX에서 개최되는 만큼 해외바이어 유치에 있어서도, 많은 경쟁력을 갖게 됐으며 더욱이 최근 급성장하는 IT산업과 동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주요 전시 품목으로는 사출성형기, 압출성형기등의 가공기계와 휘더, 온도조절기, 첼러, 취출기, 분쇄기 등의 합리화기기를 비롯한 인쇄기, 접착기, 절단기, 포장기계 등의 후가공기계와 컨트롤러, 센서, 스크루, 실린더 등의 계기 및 부품, 제품의 시험 및 측정기기, 관련전문서적 및 정보서비스 등 관련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출품, 국내 플라스틱·고무 산업 관계자는 물론 해외 바이어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최근의 개인용단말기(휴대폰), LCD, 자동차, 반도체, 무선단말기 등의 국내 대표산업들의 플라스틱·고무 이용도가 눈부시게 신장됨에 따라 제품의 대량 생산을 위한 가공기계들의 무인자동화와 초정밀, 초고속 및 초대형 성형기계 등 기술집약된 가공기기들의 출품이 높아지고 있으며, 제품가공에 따른 자동화 설비 그리고 관련부품은 물론 시험측정기기 및 관련전문 서적, 해외 전시회 품목들이 출품, 관련 산업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KOPLAS 전시회는 지난 2004년 6월 국제전시산업협회 (UFI-The Global Association of the Exhibition Industry)로부터 국내 기계관련 산업전시회로서는 최초로 UFI인증을 받아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전시회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과 한국이엔엑스는 긴밀한 협조아래 지난 2004년부터 독일의 K-2004 전시회를 시작으로 싱가포르의 ASEANPLAS, 일본의 IPF, 중국의 DMP

2005, 터키의 PLAST EURASIA, 얼마전에 끝난 우크라이나의 플라스틱, 금형전시회 등 18개의 해외 유명 전시회에 출품, KOPLAS 전시회의 홍보와 더불어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등, 해외바이어 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한국이엔엑스 제18회 국제플라스틱·고무산업 전시회 개최

한국포장기술인협회

제22차 정기총회 개최

포장연구개발보고서 발간



▲ 한국포장기술인협회 제22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달 24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2005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및 2006년 및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대주산업 김경철 차

장, (주)삼성잉크 김택수 개발부 제장, 롯데알미늄(주) 손병삼 가공기술개발팀 과장, (주)정원산업 추성만 공장장, 동원화학 홍세운 과장이 신입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날 협의회는 회원들이 작성한 논문을 중심으로 포장연구개발보고서 6집을 발간, 포장기술인 현장실무에서 얻은 지식을 중심으로 한국포장기술인협회 회원들이 작성한 논문을 게재, 총 13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사)한국포장기술사회

제4기 신임회장 선출

공재홍 (사)한국포장협회 전무이사 선임

(사)한국포장기술사회(회장 공재홍)는 지난 달 23일 노보텔엠베서더 호텔에서 제7차 정기총회를 개최, 제4대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국내 최고 포장기술사자격인 포장기술사들을 새롭게 이끌어갈 제4기 회장단에는 (사)한국포장협회 공재홍 전무이사가 선임됐다.

공재홍 회장은 “선대 회장단들이 이룩해 놓은 업적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 (사)한국포장기술사회 제4기 신입회장 선출

“포장기술사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기술사회의 각종 사업들을 정부 및 관련 단체, 연구기관, 업계, 또는 일반인들에게 까지 널리 홍보하여 그 인지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사)한국포장기술사회는 각종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며 기술사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다방면의 홍보활동과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코리아팩 전시회를 통해 포장기술사회 위상과 국내 포장산업 위상을 드높인 역할을 한 경영전략 김영수 대표와 국내 물류포장 대표기업인 LogisALL의 서병륜 대표가 감사패를 받았다. 김영수 사장은 “오히려 포장기술인들에게 제가 상을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코리아팩이 도쿄팩, 제팬팩 등 해외의 다른 전시회들 보다 더욱 훌륭한 행사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한국포장기술사회 임원 명단

고 문 김영호	고 문 이명용	명예회장 김 청	회 장 공재홍	부 회장 김용진
부 회장 남병화	부 회장 한우	부 회장 이명훈	부 회장 김기태	총무이사 김수일
재무이사 손기주	국제이사 김득수	교육이사 정현철	사업이사 신양재	기술이사 전대훈
홍보이사 신봉호	감 사 이찬원	감 사 최승민	이 사 박근실	이 사 이재영
이 사 안광보	이 사 이철원	이 사 김응주	이 사 김재우	이 사 이한영
이 사 소유영	이 사 조성규	이 사 안병국		